

# 중국팀, U23 아시안컵 결승서 력사 최고 성적

## - 일본팀에 패배했지만 ... 22년 만에 거둔 값진 준우승



지난 24일 저녁 11시 (북경시간)에 진행된 2026년 U23 남자축구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중국팀은 지난 대회 우승팀인 일본팀에 0대4로 패배했다. 비록 졌지만 충분히 잘한 중국팀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에 참가한 이래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결승전은 2004년 이후 중국남자축구 각 연령대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대륙간 주요 대회 결승에 진출한 경기였다. 일본팀은 2016년과 2024년 두차례 U23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하여 모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팀은 U21 연령대 선수들을 주전으로 구성해 공격력이 강력했으며 결승에 오기 전까지 총 12골을 넣고 단 1골만 실점했다.

중국팀 또한 공격력은 일본팀보다

약할지라도 팀 전체가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결승 진출전까지 단 한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이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랑팅은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맞섰다. 경기 5분 만에 일본팀은 코너킥 기회를 활용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첫 슈팅을 시도했고 중국팀의 키퍼 리호가 골문을 단단히 지켜냈다. 이어 2분후에는 중국팀의 상여망이 동료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힘이 약해 위협적이지 못했다.

그러던 12분경, 일본팀의 유도 오제키가 우리 팀 페널티 지역에서 때린 슈팅이 굴절되어 골문을 향해 들어갔고 이는 일본팀의 첫 골이 되었다. 경기 20분에는 코세이 오구라가 중국팀 박스 밖에서 볼을 차단하더니 오른쪽 샷으로 2대0을 만들며 앞서갔다.

후반전에 돌입해 57분경, 류호범이 페널티 지역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해 일본팀에 페널티킥이 주어진 가운데 류노스케 사토가 성공시키며 점수를 3대0으로 벌렸다.

후반 68분에는 중국팀의 양희가 일본팀 페널티 지역내 추가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 무효 선언됐다. 그러다 76분경, 코세이 오구라의 중거리 슈팅이 또다시 굴절되며 리호가 막아내지 못했고 중국팀은 최종 0대4로 패배했다.

이번 U23 아시안컵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비록 마지막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중국팀이 2026년 U23 남자축구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분명한 큰 돌파이다. 젊은 혈기로 가득찬 이 대오는 이번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준우승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면서 당당히 준우승을 쟁취했다.

조별 리그를 통과하고 4강에 진출하며 당당히 결승에 오르기까지 ... 4번 시드 팀으로서 그들이 일으킨 젊은 피의 폭풍은 연속 세번이나 새로운 력사를 썼는바 이보다 더 가슴 뜨거운 싸나리오를 없을 것이다.

물론 결승전의 0대4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아시아 최정상 팀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기록 돌파는 축하받아 마땅하다.

이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남자축구 각 연령대 국가대표팀이 대륙간 주요 대회 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이 긴 침체기 이후의 빛나는 성과는 중국 축구에 우로 향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중국 축구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U23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끝까지 사력을 다하는 투지와 의지로, '전략을 다해 후회 없이'라는 태도로 수많은 팬들에게 중국 축구가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이러한 격차를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일본 축구의 오늘날 뛰어난 기술은 바로 지난 수십년간 변함없이 청소년 육성에 매진한 결과이다. 이번 결승전 패배를 되새길 때,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하고 청소년 육성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기록 돌파는 우연이 아니며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U23 국가대표팀의 돌파는 오랜 인내의 결과이고 프로화 관리와 프로급 정신이 가져다준 프로급 표현이자 성과이다. 오직 계속 인내함으로써만 때때의 돌파가 최종 우승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 수 있다. / 신화사 종합

# 제 9 회 동북아빙설모터스포츠대회 도문서



23일, 제 9 회 동북아빙설모터스포츠대회 및 '삼마(森马)'컵 동북아빙설자동차레이싱경주 대문시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체육국과 연변주정부에서 주최하고 도문시정부를 비롯해 주체육국,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주수리국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길림성체육국 체육산업발전지도중심, 연변체육발전기금회, 중국우정저축은행길림성지점에서 협력했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빙판, 일광산, 시내 구간 등 세가지 특색 있는 코스를 혁신적으로 기획했다. 3일 동안 지속된 행사 기간 매일 하나의 코스에서 집중적으로 경기가 펼쳐졌는데 90여대의 참가 차량이 각 코스를 세바퀴씩 돌아 승위를 가렸다. 특히 총길이 3.1킬로미터에 달하는 시내 코스는 중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레이싱의 박진감과 변경도시 도문의 풍경을 접목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볼거리로 꼽혔다.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동성비치골프클럽' 소속의 반동선수는 "대회 조직이 매우 체계적이다. 코스 10미터마다 자원봉사자나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있어 안심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빙설 레이싱에 대한 열정으로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주최측의 세심한 서비스와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문시 관계자는 개막식에서 이번 대회는 길림성의 '빙설+레이싱' 콘텐츠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길림성 차원의 '빙설 실크로드' 전략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서 도문시를 '동북아빙설 모터 스포츠의 명소'로 육성하는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도문의 대외개방 확대와 동북아지역 협력 강화에 고고도 파급력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앞으로는 빙설 자원이라는 '랭자원'을 지역 주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뜨거운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변넷

# 길림성 24명 선수 밀라노동계올림픽 참가

1월 23일, 국가체육중국 동계운동관리중심의 밀라노동계올림픽 참가 선수 명단 공시에 따라 124명의 중국빙상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꿈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이 중 길림성 출신 24명의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체 참가 선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빙설 스포츠의 중요한 인재양성기로서 길림성의 이번 참가 선수단은 높은 기량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우선 쇼트트랙에서는 길림성의 명장 손룡이 다시 한번 경기장에 나서게 된다. 속도와 폭발력을 겸비한 이 실력파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월드컵 시리즈 대회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으며 유연한 전술 운용과 끈질긴 결승전 돌파 능력으로 국가 쇼트트랙 종목의 중추 역량이 되었다. 이번 시즌 상태가 꾸준히 회복되며 밀라노 무대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함으로써 길림성 쇼트트랙의 전통과 기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스타일 스키 공중기교 종목에서는 또 길림성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의 핵심 역량을 구성하고 있다. 북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광박을 필두도 하는데 그는 안정적인 경기력

과 뛰어난 기술로 팀을 이끌고 있다. 월드컵 챔피언 손가옥 역시 예리한 공중 동작과 탁월한 컨디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끈질긴 투지를 내세운 젊은 선수 리전까지, 세 사람은 팀원들과 함께 '호화라인업'을 꾸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다.

그러나 하면 피겨에서는 길림성의 명장 왕시모와 류홍우가 또 한번 손잡는다. 호흡을 맞춘 지 십여년이 넘는 이 '짝꿍'은 완벽한 팀워크와 감동적인 연기, 끈질긴 기질로 유명하다. 동계아시안게임 챔피언이자 제 14 회 전국동계운동회 금메달리스트인 이 두 선수는 중국 아이스댄스 분야에서 여러 번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어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길림성 출신 선수들은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점프, 봅슬레이 등 종목에 참가하여 길림성 빙설 스포츠의 풍부한 저력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 중에는 연변 출신의 알파인 스키 선수 류교진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태지은도 있는데 이들이 포함된 길림성 출신 신세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잠재력을 뽐내며 자신의 기량을 펼칠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 길림일보

# [새 시즌 준비 진행중]

## 연변팀 타이서 2차 동계훈련 한창

1차 전지훈련을 마친 연변룡정팀이 지난 19일 타이에 도착하여 2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고 구락부측이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연변팀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남에서 근 한달간 제 1 단계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체력 훈련과 선수 영입 등 전력 강화를 위한 작업에 매진한 연변팀은 2차 전지훈련을 이어가며 2026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富 民 文 明 和 谐 自 由 公 平 法 治 爱 国 敬 业 信 善 友 友

强 主 明 谐 由 等 正 治 国 业 信 善 友 友

# 诚信是福

山西运城 李惠芳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公 示**

按照《国家新闻出版署关于开展2025年度新闻记者证核验工作的通知》(国新出发电[2026]1号)要求,吉林朝鲜文报社对新闻记者证持有人员的法定许可条件、遵规守纪情况进行认真审核,现将我单位拟通过年度核验的新闻记者证持证人员进行公示,公示期为2026年1月27日—2月2日。本单位监督举报电话为:0431-87627093,省委宣传部传媒监管处监督举报电话为:0431-88905820。

拟通过年度核验人员名单:

俞昌振 权 勇 崔胜虎 朴明花  
安相根 崔 花 俞京峰 李 全  
金荣华 金 波 金佳慧 郑玄宽  
金 玲 李美燕 车泳国 刘向辉  
孙萌繁 沈英玉

吉林朝鲜文报社  
2026年1月27日